

신농양 패혈증의 회복기에 발현된 파종성 다장기 감염 1예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고훈영 · 정희선 · 박상미 · 김수연 · 윤선애 · 김영옥 · 김영수

Disseminated Infection Complicated with Renal Abscess

Hoon Young Ko, Hee Sun Chung, Sang Mi Park, Su Yoen Kim, Hun Young Ko, Young Ok Kim, Young Soo Ki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edical College, Seoul, Korea

서론 : 신농양은 신실질에 농양을 형성하는 신장의 감염성 질환으로 *E.coli*, *Proteus* 등이 주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항생제의 발달과 더불어 경피적 농흡인 및 배농의 방법으로 완치율이 높아졌다. 저자들은 당뇨병의 고령 환자에서 신농양에 의한 대장균성 패혈증이 발생하고, 회복 시점에서 패혈증성 폐 색전증과 안와 봉와직염이 재발한 1예를 경험하고 이를 항생제 치료만으로 완치시켰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당뇨병으로 개인 의원에서 경구혈당 강하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고열 및 하루 5차례 이상의 수양성 설사를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혈압이 100/50 mmHg 이었고, 맥박수는 122/분, 분당 호흡수는 20회, 체온은 37.9°C이었다. 혈액 검사상 백혈구는 24,500/mm³ 혈색소 11.2 g/dL 혈소판 11,000/mm³이었다. PT, PTT는 연장되어 있었다. 혈액 생화학 검사에서 동맥혈액가스검사는 pH 7.504, pCO₂ 15.9 mmHg, HCO₃⁻ 12.3 mmol/L, pO₂ 59.8 mmHg이었다. 혈청 생화학검사서 BUN 90.9 mg/dL, Cr 2.76 mg/dL, Total protein 5.3 g/dL, albumin 2.6 g/dL, Total bilirubin 2.39 mg/dL, AST/ ALT 24/17 IU/L, Alkaline phosphatase 294 IU/L, Na/K/Cl 127/2.6/94 mEq/L, Glucose 98 mg/dL, LDH 571 IU/L, CPK 194 IU/L, 소변 검사서 WBC 30-49/HPF, RBC 20-29/HPF, 요단백과 케톤체는 음성이었으나, 다수의 세균이 검출되었고, 소변내 아질산염이 양성이었다. CRP 가 20.38 mg/dL로 증가되고, ESR 은 69 mm/hr 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으나 MAHA는 음성이었다. 내원 즉시 ciprofloxacin 200 mg 정주하면서 수액치료를 시작하였다. 환자는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개선되고 혈압이 상승되어 입원 4병일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실 하였다. 입원 당시 시행한 혈액배양에서 대장균이 동정되었다. 입원 5병일에 환자는 흉부X선 검사에서 양 폐야의 원위부로 다발성 폐병변이 발생하고, 동시에 우안의 동통과 분비물, 그리고 충혈을 호소하였다. 항생제를 ceftriaxone과 amikacin으로 교체 투여하였음에도 폐병변이 진행되어, 입원 8병일에 중환자실로 이실 후, 전신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촬영 결과 폐의 다발성 병변과 함께 경부 및 좌측 신장의 다발성 농양이 발견되어, 항생제를 piperacillin 및 tazobactam 의 병합제로 교체하였다. 눈부위 MRI 에서는 우안의 봉와직염이 진단되어 안구 내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였다. 입원 13병일에 흉부 X선 소견이 호전되고 안구의 봉와직염이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입원 17병일째 시행한 복부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신농양의 완치 소견 관찰되어 현재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결론 : 신농양에 의한 패혈증이 파종성 다장기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